

# 2023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 【 최종선정위원회 심의평 】

2023년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심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 34명에 대한 행정심의 및 서류심의 그리고 최종선정 심의를 통해 최종 2명의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제출한 포트폴리오 및 작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번 신작 창작활동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공모사업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예술적 역량과 가치를 검증하여 연구·전시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심의하는 데 있어 지원자의 역량과 자원, 예술성과 독창성을 재검증하고, 이와 동시에 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최종 선정된 두 작가는 작업의 내용(심미성, 창의성, 구체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공감대가 비교적 높고, 매체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그리고 공간 연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작품의 완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의제와 형식의 작업을 전개해온 경기작가들을 볼 수 있었다.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동시대 현실 이슈를 미래적 비전으로, 공감가능한 공감각적 형식으로 펼쳐온 작가를 상대적으로 평가 우위에 두었다. 작가가 천착하는 작업 개념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적인 연속성 그리고 작품을 매개로한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 특히, 무엇보다 수용자인 관람객, 대중과의 공감가능성, 전시가 열릴 미술관의 공간과 전시 구현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 지원자 대부분 나름의 충분한 작업 열량을 가지고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만큼 심의, 선정이 쉽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이번 공모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심의를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 지역에서의 꾸준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향후 경기미술의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는 작가들, 미술 본연의 것들은 물론 동시대적 이슈와 가치를 제기하고 이러한 개념적인 문제의식들이 일회적인 관심과 유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 작업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작업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온 작가들을 주목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작가적인 노력들이 중견작가로서 향후 미술계 내에서 현실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조명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취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원 결과로서의 전시도 중요하기에 제안의 진정성은 물론 현실적인 구현가능성이나 대중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측면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했다.

2023. 10. 13.

심의위원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	신혜경
심의위원	전 김택화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천남
심의위원	독립 큐레이터	민병직